

<설 특집> 인터뷰/ 김경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홍승태 기자 | ㉠ 승인 2026.02.12 17:23

"지역 고령·청년 농업인 지원...농촌 활성화 최선"



▲ 김경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충북은 다양한 분야의 농업인들이 생계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농가는 고령화·청년 농업인 유출 등으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수'들이 '병오년' 새 해 부임했다. 김경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과 이경래 농협 청주시지부장이 바로 그 주인공. 동양일보는 설날을 맞아 신임 농업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그들의 올해 역점 시책과 농업 애로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김경한(58)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인터뷰에서 도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정유관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농촌공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충북본부도 이에 발맞춰 음성 금왕읍에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을 연내 준공하는 등 올해 총 749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농촌공간 광역지원기관으로 정책을 선도하는 ‘정책수행기관’ 역할을 하는 본부는 올해 도내 11개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지원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농업인 도약과 고령 농업인을 위한 방안 및 지원 계획도 빈틈없이 계획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청년 농업인은 농촌의 미래이자 지역 활력의 핵심이다. 하지만 농지 확보와 자금 부담 등 여러 현실적 고충을 겪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생애주기형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과원규모화사업 등을 통해 청년농의 영농규모 확대에 안정적 정착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농도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연령 농업인을 위한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충북 맞춤형농지지원 8111억원·경영회생지원 2923억원·농지연금 972억원을 투입하며 농업 구조개선과 세대교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18억원을 농지은행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피력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보급과 관련해 그는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스마트팜은 반드시 필요하다. 충북본부는 제천시 천남동 일원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및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준공과 현재 영동군 양산면 일원에 지역 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 괴산 칠성면 일원에는 노지스마트팜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단순 시설 도입에 멈추지 않고 기술운영역량, 데이터 기반 재배관리, 판로확보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경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용수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기준 도내 저수지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86.7%다. 이는 평년 대비 108.4% 수준으로 올 한해 영농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양수장, 용배수로 등 각종 수리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를 진행하는 등 농업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은 단지 특성 지역의 문제가 아닌 도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충북본부는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서울 출생인 김 본부장은 서울 문일고와 인하대 법학과를 졸업, 서울대 공기업 고급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본사 경영혁신실 사회적가치추진단장과 경영혁신부장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부장, 기획조정실장, 충주제천 단양·옥천영동 지사장을 역임한 그는 ‘농촌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